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12월 뉴스레터 vol. 7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소식

채우고 비우고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알쓸신장

메멘토모리

살아생전 준비하는 부모님 인생 정리함 '채비함' 편딩

우리 마음 속에 나무가 자란다

엄마는 '영산강 처녀' 좋아하셨어요

영정사진 준비하기

작별인사



살아생전 준비하는 부모님 인생 정리함 '채비함' 편딩

채비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웰엔딩 박스입니다

- ▶ 부모님과의 추억과 흔적을 담은 '채비함'
- ▶ 삶을 기록을 담을 수 있는 '엔딩노트'
- ▶ 채비함 웰엔딩 강좌
- ▶ 후불제 상조서비스 가입 상품권

채비함은 바른 장례문화를 알리기 위해
추모에 진심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장례가
진행하는 캠페인 상품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나무가 자란다



난데없는 수해를 겪었다. 그것도 정확히 내 책상만. 연휴 끝나고 출근한 날이었다.

제일 먼저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책상 바로 위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책상 위에 있던 책이며 자료, 노트, 키보드 등속이 흠뻑 젖었다. 그 수해물품 중에는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도 있었다. 이 아름다운 책을 버리다니! 너무도 속상했다. 다 읽고 나서 '꼭 소장해야지' 했던 책이다. 이제부터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책 얘기를 해볼까 한다.

나무의 어두움...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왜 나무의 어두움일까. 어두운 나무도 아니고. 그늘 짙은 숲일까. 혹시 그 어두움은 가려진 곳, 숨을 곳, 실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나무가 만드는 그늘, 품, 안식처 같은 곳.

깊이를 알 수 없는 질푸른 우주에 별과 꽃과 나무 이파리가 있다. 은빛 은하수가 강처럼 흐르고 꽃을 수놓은 빨간 바지에 노란 상의를 입은 소녀가 두 손을 베개처럼 베고 잠들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인데 어둡다고만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몽환적인 그림이다. 나는 표지 그림을 보고서야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는 이난영 작가의 손그림이 담긴 그림 에세이다. 이난영은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20대 대부분을 평화운동 단체에서 보냈다. 활동가, 작가, 행위예술가 등의 이름으로 살았고, 아현동 등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이웃들과 작은 생명에 대한 기록, 그림 작업을 해왔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작가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의 어두움 속으로 날아들어 비를 피하는 광경을 본다. '아, 나무가 새들을 감쪽같이 보호해주고 있구나, 저 어둠이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더 어두워져도 괜찮겠구나'라고 깨닫는다.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힘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의 어두움이 깊을수록 인식의 품은 넓어진다.

도시는 오늘도 도로를 내고 크레인으 빌딩의 지평선을 또 한 뼘 쌓아 올린다. 도시는 어쩌면 개발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을 지녔는지 모른다. 끊임없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가 잘려나간다. 도시의 성장만큼이나 사람들의 가슴에 뚫린 구멍도 커간다. 그 개발의 뒷면, 어두운 곳에 작은 생명들이 있다.

잘린 나무가 있고,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나오는 어린 식물이 있고, 옥상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식물도 키우고 함께 모여 TV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약해 보이지만 도시의 황폐를 감싸고 가슴 뚫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존재다. 나무의 어두움이 깊어야 그들의 품이 더 넓어지듯, 도시를 다채롭고 깊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 책은 도시의 그늘과 나무의 어두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어두움은 컴컴하지 않고 작은 새가 날아들어 안식할 수 있는 어두움이다. 도시 뒷골목의 나무 한 그루가 새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나무의 그늘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늙은 나무가 기댔 둥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약한 존재들이 또 다른 약한 존재에게 건네는 위로다. 작가는 말한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나무 한 그루씩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 문명의 그늘을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마다 가진 마음속의 나무, 숲, 그늘. 이 책은 가슴에 구멍 하나 뚫린 채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녹색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 벌판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꽃, 돌담 틈새의 작은 풀, 고향 집 감나무, 혹은 나만의 거대한 나무. 무엇이든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을 테니 그걸 기억하고 떠올리며 숨을 쉬라고 한다. 그러면 식물이 당신을 위로할 것이라고.

“마음 속에 숲이 있다면, 조용히 걸어 들어가 엎드려 울어야지.”

작가는 호주머니 속에 씨앗을 넣고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키보다 수십 배 크게 자랄 나무를 상상한다. 누구에게나 호주머니 속 씨앗이 있지 않을까. 싹이 트고 가지가 나오고 아름드리나무가 되고 깊은 쉼과 안식을 주는 나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나무가 자란다. 아름다운 나무 하나씩 마음속에 품는다면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니까.

글과 손그림으로 채워진 이 책은 녹색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기도를 담았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상의 방 한칸. 그곳에서 길어 올린 식물과 그림들. 이 세상에는 단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이 참 많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엄마는 '영산강 처녀' 좋아하셨어요



올해 늦은 여름 즈음에 관악구에 있는 ‘관악정다운의료사협’의 조합원이 되었다.

이런저런 기회로 만난 정다운 이사님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정다운의원의 재택진료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재택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 자신의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다운의원 교육실에서 재택진료 현장에 관한 사례를 들었다. 사례를 발표하시는 선생님마다 마지막에는 환자의 임종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그래서 임선희 사무부장님의 기획으로 2주 후에 정다운의원에서 채비추모장례 사례에 관해 나누었다. 20여명의 사람들이 뺄곡하게 어깨를 맞대고 앉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악구에서 정다운의료사협 덕분에 편안한 재택진료가 더 활성화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 가지 더 바램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 중에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들은 <관악정다운의료사협 조합원>이 되어서 좋은 의료혜택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날 강의에 참석했던 관악정다운 의료사협의 구명숙 이사가 쓴 SNS소감을 함께 싣는다.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오랜만에 조합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강의하시다가 전승욱 샘이 불쑥 한 질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묻는데 ... 잠깐 엄마가 돌아가신 걸 잊었다.

'86세요.... 아.... 3년 전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영산강 처녀'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뜸 '한번 불러보श्य요' 한다.

'똑딱선 기적소리 똑딱선 기적소리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두 세 마디를 소리 내어 불렀다. 처음이다.

엄마 돌아가신 후 엄마와 같이 부르던 그 노래를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다니. 얼떨결에.... 원래는 '똑딱선 서울간 님'인데 엄마는 이렇게 불렀었다. 부엌일 하시다가도 가끔 내뱉듯이 ... 부르셨다.

그 제목이 '영산강 처녀'라는 건 엄마가 1인 병실에서 문 밖만 바라보고 계실 때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하며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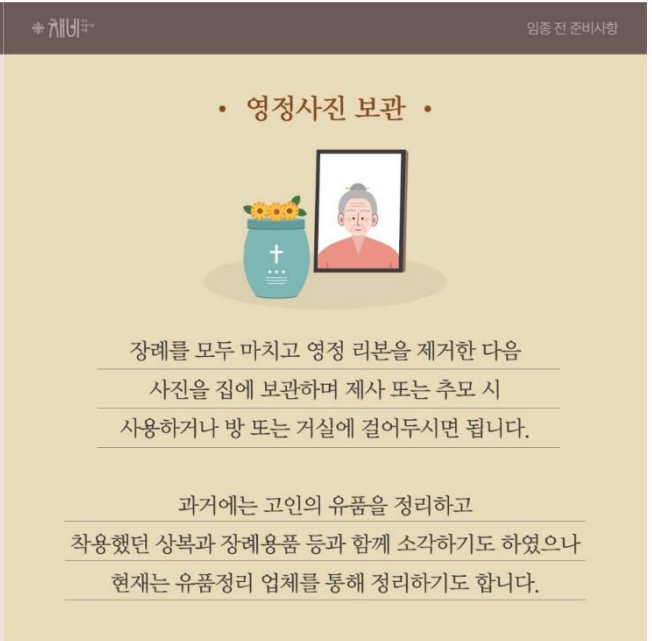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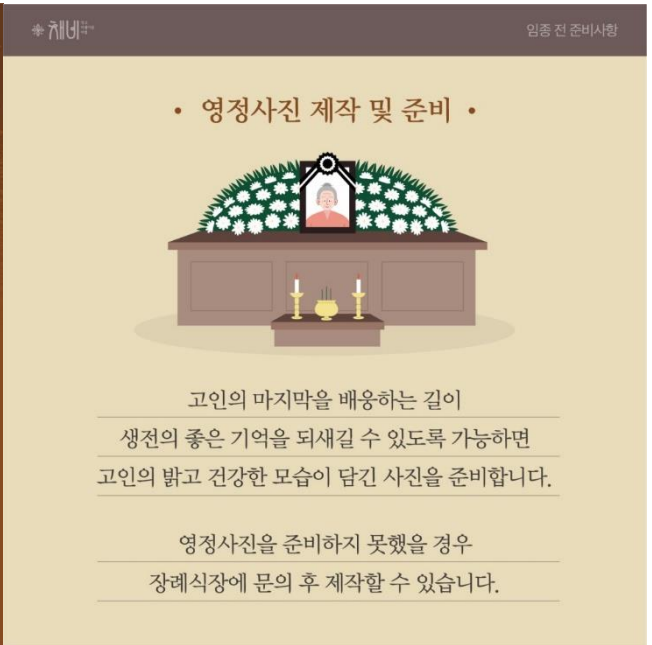
엄마가 듣고 싶은 거 찾아서 같이 듣고 부르던 순간이 기억나고, 이모님들이 오셨을 때도, 동생들이 왔을 때도 같이 불렀던 그 노래가 내 입으로 나왔다.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쏠리는 것 같았다. 심호흡하며 견디느라 힘들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며, 채비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불안하지 않고, 조금은 넉넉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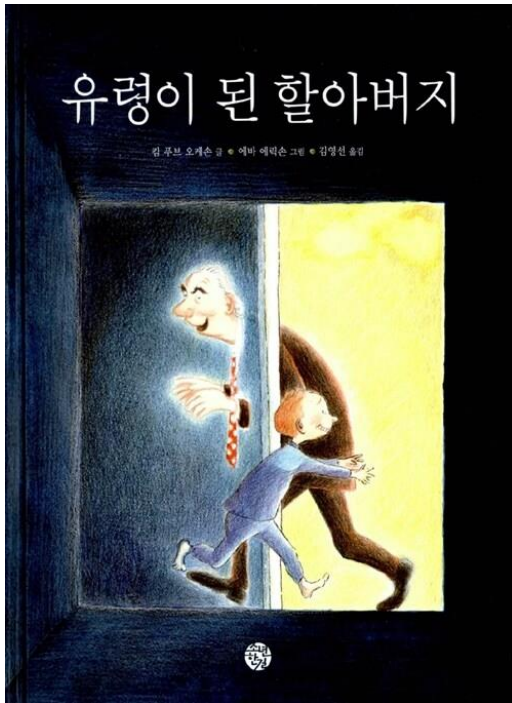
관악정다운의료사협 구명숙 이사

영정사진 준비하기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작별인사



유령이 된 할아버지

김 푸브 오케손 (지은이), 에바 에릭손 (그림) | 한길사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날 밤, 에스본의 방에 할아버지가 서랍장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장병으로 길을 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가 천사가 되었다고 하고 아빠는 흙이 될 거라고 했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유령이 되어 손자 에스본 앞에 나타난다.

에스본은 무언가를 빠트리고 간 사람들이 유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에스본은 할아버지가 왜 유령이 되었는지, 무엇을 빠트리고 간 것인지를 함께 찾아나선다.

에스본과 할아버지는 여러 날동안 빠트린 것을 찾아 헤맨다.

그동안 할아버지 머리속에는 파노라마처럼 옛일들이 펼쳐진다.

드디어 할아버지는 자신이 왜 유령이 되었는지를 알아낸다. 할아버지가 놓친 것은 ‘손자와의 작별 인사’였음을 깨닫는다. “너와 작별 인사하는 걸 빠트리고 갔더구나. 사랑하는 내 손자 에스본” 하고 인사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진한 감동을 불러온다.

책은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이가 유령이 된 할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에 자연의 이치를 담아냈다.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선,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죽음이란 무겁고 어둡다는 선입견을 깨고 애뜻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죽음이 닥치면 어떨지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2023년 11월

모성훈 조합원 모친상
강정자 조합원 모친상
안병렬 조합원 모친상
장국진 조합원 모친상
진원섭 조합원 배우자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반민석 조합원 부친상

이창우 조합원 부친상
유근혁 조합원 모친상
이지숙 조합원 조모상
윤정현 조합원 부친상
윤미현 조합원 시부상
이동근 조합원 장모상

최대원 조합원 형제상
정홍근 조합원 부친상
박희주 조합원 모친상
김종필 조합원 부친상
오종수 조합원 장모상
문희정 조합원 모친상

2023년 10월

이호중 조합원 부친상
남종영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박예진 조합원 시부상
김국영 조합원 부친상
윤병훈 조합원 모친상

이병학 조합원 모친상
전동선 조합원 부친상
장동현 조합원 부친상

2023년 9월

전성환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최희인 조합원 배우자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조영철 조합원 부친상
오세중 조합원 모친상
정서진 조합원 부친상

이재성 조합원 모친상
김용식 조합원 모친상
형대조 조합원 장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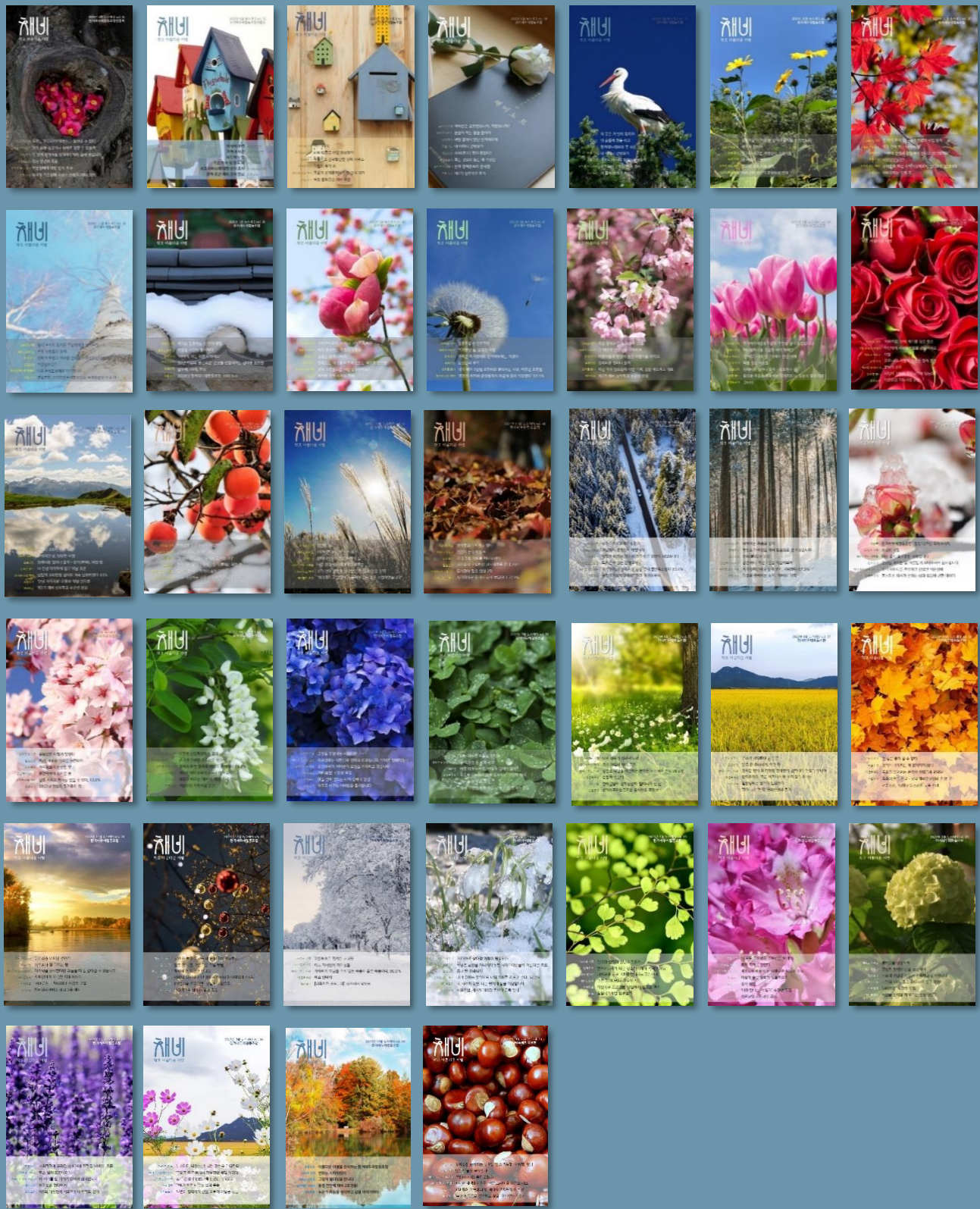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